



유럽안정기금(EFSF) 증액안 통과와 역할 확대 방안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9월 30일 독일 의회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유럽이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어가는 모습임.

-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의 25%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은 9월 29일 하원 표결을 통해 2,500억 유로의 EFSF기금을 4,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함.
 - 독일 하원의 증액안 통과 후 9월 30일 연방 상원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, 상원의 동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.
- 7월 21일 EU차원에서 결정된 EFSF 증액안은 유로지역 17개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될 수 있는데, 9월 29일 현재 유로존 17개국 중 11개국 의회가 승인한 상황임.
 -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슬로베니아, 핀란드, 독일 등 8개국 의회는 EFSF 증액안을 승인함.
 -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 3개국은 의회 승인이 필요치 않음.
 -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는 9월 30일에 네덜란드, 슬로바키아, 몰타, 키프로스 등 나머지 4개국은 10월에 증액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.
 - 독일의 증액안 승인으로 유럽이 일단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기는 모습이나, 그리스 구제에 대한 독일 여당 내 이견 표출, 핀란드의 거센 반대 여론 등과 같은 현상이 나머지 4개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는 상황임.

■ 유로존의 EFSF 증액 승인은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의 필수 조건으로 다른 유로존 국가로 디폴트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시그널임.

- 만약 EFSF 증액이 실패하게 되면 그리스의 ‘질서있는(orderly) 디폴트’도 사실상 어려워지며, 디폴트의 연쇄적 확산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유로존 탈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큼.

- EU 집행위원장은 EFSF 증액이 성공하면 EFSF의 역할 확대를 통해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으며, IMF처럼 예비자금 성격의 신용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힘.
- 로이터통신은 독일·프랑스 등의 재무관료들이 특수목적법인(SPV)을 이용해 EFSF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.
 - EFSF가 자금 일부를 SPV에 출자하고, SPV는 채권을 발행하여 가용자금을 확대하여 유럽 시중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안임.
- Wall Street Journal은 유럽중앙은행이 SPV에서 발행된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함.
- 그러나 증액된 EFSF(4,400억 유로) 중 90%는 이미 그리스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SPV에 출자될 자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, 이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도 획기적으로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9/29, Wall Street Journal 9/29, Bloomberg 9/29 등)